

## 2018년 하반기 (주)서울프린스호텔 협력, 문학창작집필실(소설가의 방) 사업 입주작가 선정심사 총평

- 심사위원 : 손홍규, 서유미, 김유진, 윤고은
- 심사안건 : 2018년 하반기 (주)서울프린스호텔 협력, 문학창작집필실(소설가의 방)  
사업 입주작가 선정

2018년 하반기 호텔프린스 ‘소설가의 방’에 입주를 신청한 작가는 열일곱 분이었다. 심사위원들은 사전에 지원신청서 등을 검토하였고 심사를 위해 모인 자리에서 심사기준 등을 조율하여 심의를 진행했다. 지원자 열일곱 분 가운데 누가 입주해도 상관없을 만큼 모두 자격이 충분하다는 점에 심사위원들의 생각은 일치했고 그런 이유로 제한된 인원 안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무척 곤혹스러웠다. 연령 제한은 없는 대신 등단 십 년 이내라는 조건만 있는 이유는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나 젊은 소설가, 소설가의 길을 걷게 된 지 오래 되지 않아 기성과는 다른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다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런 소설가에게 무게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뜻일 것이므로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심사위원들 역시 모두 소설가인지라 집필에 몰두해야 하는 시기에 ‘소설가의 방’과 같은 집필 공간에 입주한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를 잘 알았고 그런 기회를 모든 지원자가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에 상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밝히자면 우선 작품집 발간 계획이 있는 지원자와 다른 집필공간에 입주한 이력이 없거나 적은 지원자, 지방거주 여부 등을 고려했고 등단 십 년 이내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지원자격 만료가 임박한 지원자를 차선으로 배려했다. 많은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여섯 분을 입주 작가로 선정했다. 그분들이 ‘소설가의 방’을 멋진 집필공간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 믿는다. 더불어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다른 작가 분들 역시 집필실이 절실할 때 다시 문을 두드려 입주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덧붙이고 싶다.

심사위원 소설가 손홍규 서유미 김유진 윤고은